

# 국제화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순	서
1.	커져가는 세계경제속에 숨겨져있는, 농촌진흥정책
2.	물과 공해 문제
3.	관광
4.	가금산업
5.	영구적으로 농촌경제 육성을 위한 식목
6.	수산자원 확보로 농어촌경제 육성
7.	시정되어야 할 교통행정
8.	외화제도 개헌사항
9.	산업화로 갈 수 있는 농군

김 병 식

- 재미동포 (캘리포니아 거주)
- 미국 B & H TRADING CO. 대표
- 한국 은조상사 기술 자문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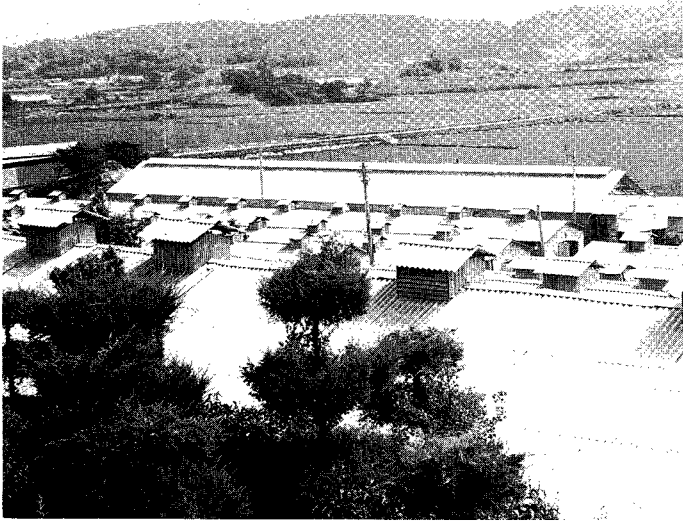
## 4. 가금산업(가금류 종류)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성장하는 농촌 기업체로서 닭의 순수혈통을 지켜 분류 사육하는 미국의 닭전문 업체를 보고 그들의 끈질긴 인내심에 탄복하였다. 이들은 백여종이 넘는 닭 종류를 가지고 관상용, 채란용, 육용 및 투계 용에 이르기까지 대를 이어 씨종 채집 및 많은 육종 과정을 걸쳐 자기네 것으로 소화시킨 신

종 닭들을 세계에 내놓고 있다.

채란용으로 쓰여진 Rhode Islnd Red, New Hampshire, 혹은 Light Leghorn 등은 옛날부터 선진국에서 도입되어 길러온 닭들이나 그들이 신종으로 내놓은 닭의 이름은 Golden Nuggets, 및 Cherry Eggers로 선전되어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

토종닭의 원산지를 찾아 원산지명으로 이어지는 닭들, 일본의 토종닭인 Japanese



Bantam, Yokohama 등 영국의 Old English Silvere Gyptian Fayoumis, Silkie Bantam, Cochin 그외 많은 닭들이 원산지 명을 쓰고 있다.

한국의 토종계는 그 원천이 근원이 없는 계로서 존속되어 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그나마 순수혈통을 지니지 못하고, 외계와 혼합교배를 거쳐 명목적인 토종계로 유지되는 것 같다.

또한 부활절을 기해, 많은 양의 알이 판매되고 있는 Araucanas닭은 여러 색깔의 알을 낳는고로 학생들의 자연과학 공부에 쓰이고 있다. 육계용으로 미국인 식생활에 주종을 이루는 육계의 으뜸인 White Cornish계로서 UR 정책으로 전세계에 알려진 닭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선 찾아볼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지나치게 우리 토종닭에만 집념된 것이 아닌가 싶다.

본인 또한 Cornish계의 신종을 개발코자 많은 육종과정을 시도하여, 성장이 빠르고 체중이 많이 나갈 수 있는 닭으로 연구했으나, 이

미 닭 전문업체에서 대량생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우리도 UR정책에 대비하여 이러한 닭들에 더 깊은 연구와, 우수한 육질의 모계를 연구하여, 우리의 닭으로 세계에 선 보이고 싶다.

평과만 전업으로 사육하여 세계화로 가고 있는 농군도, 닭과만 취급하는 농군 못지 않게 많아 이목을 끌고 있다. 평과 역시 크게 3종류로 구분되어 관상용, 사냥용, 식용으로 사육되고 있다. 관상용으로 Mikado, Amherst, Silver, Golden, Elliot,

Tragapan, Reeves, White, Brown Ear, Imperial 등 많은 회귀평을 전업사육하여 세계 시장에 보급시키고 있어, 이 방면에 주도적으로 연구를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세계산업성장을 위해, 지적전쟁에서 시달리는 현대인 일수록 자연에 의존된 사회의 평화, 가정의 평화 및 마음의 평화가 요구되고 있어, 자연동물의 선호도가 세계적으로 늘고있다.

이러한 선호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본인도 가입되어 있는 세계평협회 World Pheasant Association, Americanpheasant Ass. 및 각 지방의 Pheasant Club이 형성되어, 월간지를 발간해 농민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LA시내의 Pomona Fair를 비롯 각 주에서 개최되는 Animal Fair(동물전시회)를 통해 그들의 씨종을 판매 혹은 교환정보 센터의 역할을 담당해 회귀종새, 매추리과, 꿩, 닭, 토끼, 칠면조, 산돼지를 비롯 각종 동물의 전시가 년4회 개최되고 있다.

우리도 동물에 대한 사랑과, 필요로 하는 채

집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Animal Club이 조직되어 특수한 씨종 및 희귀종 반입을 위시해, 세계가 요구하는 품종을 개발하여 수출을 유도할 수 있는 정보잡지사가 부분별로 있었으면 한다.

위의 모든 가금류들을 연구 및 증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자체 Incubator(부화기)의 확보는 다방면으로 필요성을 갖고있다고 본다.

급변하는 과학문명화시대에서 도태되고 있는 자연과학분야에, 부화과정을 통해 교육화할 수 있는 점과, 정서적인 취미생활로 많은 금수 종류를 연구하여 나갈때 부농의 꿈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식용으로 연구되어진 육중한 몸무게를 가진 이 꿩은 날지못할 정도의 큰 꿩으로 선천적인 유전원천이 Mongolian Pheasant로 우리나라에 분포되어 있는 Chinese Ringneck꿩과와는 색상과 크기를 달리하고 있다. 색상과 자태가 아름다워 박재용으로 쓰이면 일품이 될 것이다.

야생성 성격을 가진 타종류의 꿩과 달리 온순한 성품을 가진 이 꿩은 proso같은 개량된 목초와 수수 및 옥수수만의 사료로 방목사육이 가능하나 토향적인 맛과 질을 갖게하기 위해서는 벌레나 곤충들을 먹이로 급이하는 것이 좋다.

또한 꿩고기의 특이한 토향적인 육향을 즐기는 서구인들의 증가 추세로 보아, 세계시장을 겨냥하는 가공식품으로, 만두 혹은 라면, 또는 중국인이 비둘기 고기로 개발하여 인기도가 높은 창우지에산 비둘기 고기를 기름에 튀겨 먹게 된 것을, 꿩고기로 대체해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신펙고기 튀김 등은 어렵지 않게 해외

우리도 동물에 대한 사랑과,  
필요로 하는 채집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이  
구성되어 특수한 씨종 및  
희귀종 반입을 위시해,  
세계가 요구하는 품종을  
개발하여 수출을 유도할 수 있는  
정보잡지사가 부분별로  
있었으면 한다.

시장을 확보할 수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신펙꿩을 대량 생산하여 국내 식품업에 까지 확보할 수 있다면, 농촌경제에 활성화를 가져 오리라 믿는다.

칠면조과로는 Broad Brested Bronze, Giant White(대형 흰칠면조) 등이 있는데 이는 산업성 가공식품으로 널리 이용되어질 뿐 아니라 Thanks Giving Day(추수감사일) 및 크리스마스날에 모든 가정의 전통적인 요리중의 하나가 된다. Bourbon Turkey는 색상이 아름답고 육질은 좋으나 상업용으로 쓰일만큼 크지가 않다. Wild Turkey는 야생조로 작은 몸무게를 가지고 있으나, 육질 또한 우수해 가끔으로 사육되고 있다.

미국의 주식에 일부분을 차지하는 이 칠면조고기는 많은 상업성 가공식품으로 널리 보급되고 있으나 주로 샌드위치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학생들 그리고 직장인의 점심, 다이어트음식으로 쓰인다. 지방이 적고 콜레스테롤이 없이 깊은 맛을 지니고 있는 칠면조 고기는 미국의 식

탁에 주종을 이룰 수 있다고 보나, 국내에서는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국내 식생활 개조가 절실하다고 본다.

젊은 세대의 식생활 변화로 칠면조의 사육가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본인은 믿는바, 농촌전망을 위해 지금부터 공동사육준비에 임했으면 한다.

꿩과를 비롯한 메추리과 California Quail Bob White 및 Chucker 등은 흰꿩, Mutant(청꿩) 및 Chinese Ringneck Pheasant와 함께 널리 개인사냥터에 쓰여져 사육자가 많다.

## 5. 영구적인 농촌 경제 육성을 위한 식목

건축용 자재를 위시한 각종 목재에서 제지 원료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펄프의 수용은 국제 가격 인상에도 수입원의 의존도는 점차로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포플러에서 채취된 펄프를 원자재로 쓰고 있는 제지 생산업체들은 현지 공급 가격이 수입 가격보다 높다는 이유로 수입에만 의존해 현지 생산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국내 공급기능은 전면 마비상태가 될 것 아닌가. 이러한 실정에 발 맞추어 위축현상을 안고 있는 농어촌민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발전 잠재력을 일깨워 WTO의 위기를 위기로만 보지 않고, 한달에 도약을 위한 기회로 삼아 농민과 정부는 경쟁력 투자를 활용하여 장기적인 공동수입원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물 사용량이 세계 선진국에 버금가는 선진국

가라면 나무 및 펄프 소모국으로서도 세계수준에 달해 있을 것이다. WTO 출범에 따른 국민의 각오가 모든 상황 변화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대처하고 있는 지금, 우리 농민의 손으로 심어 우리의 강산을 빛나게 하면서 수입에 의존하는 의식제도를 개혁 했으면 한다.

한때 정부 정책하에 산림녹화 정책을 위주로 많은 나무를 식목하여 지금의 푸른산을 이루었다고 보나 전반에 걸친 이 산야는 경제성이 없는 잡목을 이루어 삼림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소재만 지니고 있다. 그러나 많은 기간내에 많이 자라고 있지 않는가. 좀더 신중한 연구를 거쳐 기후가 적은 강우량으로 자랄 수 있는 우리의 경제목을 심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렇듯 영구적인 경제성 진단을 갖지 못하고 시행된 식목의 결과는 중도에서 흐지부지 되어 버려 시작하지 못한 결과가 되어 버릴게 아닌가. 세계적인 미국의 Weyerhaeuser Lumber 회사의 경우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부터 오레건, 워싱턴에서 캐나다에 이르기 까지 산업 및 공업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다양한 종류의 나무인 포플러, 양 풀푸레 나무, 적송, 삼목, 참나무, 단풍나무 및 전나무 등을 전세대에서 영구적인 세대를 목표로 하나를 베면 두개의 나무를 식목하게끔 하는데 이처럼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한국이 가장 중대하게 받아들여야 할 과제라고 보고 싶다. 우리나라도 100년을 주기로 한 장기 계획을 세워 새로이 탄생되는 지방자치제와 함께 시행 된다면 산업화를 이룩하기 위해 폐허화된 국토를, 또한 국보로 상징할 수 있는 관광유치국으로 변모할 기후와 토질에 맞는 경제목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이 국가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때 마다 가볍게 임시 변통하는 국민성 자체가 거시적이고 영구적인 대책 마련을 못하고, 복합적인 부작용을 고려 못한 채 시행된 사회구조, 경제구조, 산림구조 및 도시 구조 전반에 제수술을 요하고 있지 않는가? 종이의 원료 펄프를 위한 이 나라의 공급원으로 책정된 바 있는 포플러의 일종인 "은수원 사시" 같은 경제목은 20년을 전후로 벌목이 가능한 나무로서 지방자치체가 시행됨에 따라 행정구역내에 분포되어 있는 크고 작은 냇가를 비롯, 농가의 유휴공간 및 강가의 변두리 쪽 등에 식목 했을때 이 포플러는 제기능을 다해 급성장함은 물론 관광코스에 훌륭한 한 몫을 담당할 것이며 제방역할 및 물을 정화하고 보존하는 역할까지 할 것이다.

점차적으로 전국의 잡목대체 운동으로 농민들이 동참케 할 수 있는 정부의 계몽이 실천되어 농민들로 하여금 영원한 자부심과 경제목으로 이 강산을 지켜 나갈 때 영원한 선진 관광국으로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로 인한 모든 수입원을 농민과 함께 한다는 원칙 하에 장기적인 정책이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또한 우리 후세에 영원토록 농민들이 영적재산을 남겨 놓게 될 것인즉 UR 혹은 WTO의 심적불안을 달고 일어난 궁지의 씨앗이 되었으면 한다. 이러한 공동 체제를 이루어 마을 및 지방자치체의 재원을 확보하고 나아가 첨단임업을 통해 산업발전에 기여했을때 국민공유의 자산으로 남게 될 것이다. 알래스카주의 경우 주민 전체에 석유에 의해 얻어진 이익금을 공동분배시켜 줌으로써 석유공해 발생시 온 주민들의 공동참여로 주에 대한 나라사랑이 더해 가고 있는 것

을 볼때 이 국가가 농민을 위한 제방역할이 되었으면 한다.

또 다른 임업전망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의 유휴인력을 이용하여 전시위기가 아닌, UR 정책의 위기를 능동적으로 우선할 때라 생각한다. 즉, 공산권 국가들이 민주화로 전향하는 과정에서 전쟁 도발성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아 국가를 위한, 농민을 위한, 치산을 위한 군이 되어 임업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국방과 경제목 대체의 역할을 맡는 산업군이 되었으면 한다. 이랬을 때, 장기적이고 장엄한 국가산업의 기틀은 잡혀갈 것이며, 농민의 위기를 막아준 현역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군출신으로 나라에 대한 나무에 대한 애착심은 영구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군의 유휴인력을 활용하여 사회봉사요원 및 환경감시원의 역할까지 수행했을때 나라의 모든 기강이 바로 잡혀 갈 것으로 보아 국민의 호응은 대단할 것으로 본다. 중요한 것은 잡목대체를 시도하는 산업군의 위치가 세계각국의 환경개선을 위한 방향제시와 남북대화의 긴장을 완화함은 물론 세계를 향한 이 나라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여 통일의 절실함을 일깨워 주어 산업통일을 주도해야 될 줄 안다.

## 6. 수산 자원 확보로 농어촌 경제 육성

천연의 아름다운 자연과 크고 작은 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우리 한반도의 지리적 여건은 풍부한 수산자원의 보고로 임하고 있어야 원칙임에도 고갈 되어지는 수산자원의 현실 때문에 우리 어촌에는 심각한 국가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다행하게도 1970년을 전후하여 숙명적으로 고갈현상을 일으켜 왔던 어족, 패류 및 해조류의 양식기술 개발과 함께 종묘 생산 기술이 확대되어 담수어 및 해수어의 양식 생산량 증대로 한몫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부분적인 특수 어류로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 전체의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근본대책의 어종은 아닌듯 싶다. 농어민 전체의 공동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자원을 지역 협력체제 하에 개방된 복합 양식 체제로 갖추어 나갈때 산업화의 터전은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가두리 양식업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많은 치어를 생산하여 자치제 산하에 많은 어종을 연구 배양하여 나갈때, 그 가치를 영구적이며, 농어촌에 크나큰 희망을 안겨 주고 동시에 어촌이 기대하는 정부의 영구적인 대책이기도 하고, 지하자원이 없는 이 나라가 심어야 할 씨앗이라고 본다. 미국에는 알래스카를 비롯 각 주마다 주정부 최대 부화장을 두어 담수어 및 해양성 어류 및 많은 어종연구가 계속 되면서 방류된 치어보호 및 산란철에 어획금지법을 제정하여 법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뿌리 내려진 Chum Salmon(연어)과는 일단은 성공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나 더 크고 기름이 많은 양질의 다른 연어과에 도전해 보고 싶다. 연어류는 토향적인 취각을 이용해 뿌려진 고장에 돌아와 산란하고 죽는 고기로서 뿌린대로 씨앗을 가져가 영구적으로 끊이지 않는 유대 관계를 이어 주지 않는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인간의 수정 기술로서 많은 양을 배양했을 때 고갈되어지는 자연

에 대한 인간의 숨은 이면으로 보답하는 일이라고 본다. 칠레 같은 나라는 늘어나는 세계시장의 요구에 따라 고급 King Salmon 혹은 Silver Salmon을 비롯 다양한 어종을 배양하여 남미 중에 가장 활발한 경제국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을 볼때 삼면을 바다로 한 한국이 바다를 너무 외면하고 살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자아낸다.

우리나라의 배양기술은 JOHN OH 박사의 연어를 접목시킨 이후 부터 발달해 세계적인 위치에 놓인 것으로 안다. 우리도 어업분야에서 수출국으로 부상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여 각 어종에 대한 생태계를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교육체제와 국가 산하의 부화장을 많이 두어 어촌의 밝은 미래를 갖게 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싶다.

주목할만한 치어육성으로, Black Cod(은대구)같은 어종을 반입하여 생산할 수 있다면, 제주도에서 서식하는 옥돔같은 어종 이상으로 고가로 전량 일본에 수출할 수 있다고 본다.

장려되는 품종으로는 Sea Urchin(성게), Shed(준치), Stripe Bass(줄무늬농어) 등등 많다고 본다.

원양어업도 세계각국의 해양법 강화로 점차 치열한 감시 및 과도한 경쟁력 때문에 사양일로 있는 실정이고 보면 범국가적 차원에서 심해수중부화법이 연구되어져 필요한 세계국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가증하고 싶다.

한반도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토속적인 진미를 가진 원광조기, 갈치, 도루묵 및 동해안의 털참게 같은 어종은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향수의 맛을 가진 어류로 필히 연구되어 잘 보존되어야 할 줄 안다. **양 14**